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3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9
강원도민일보	15	가	' '	20
강원도민일보	14			20
江原日報		“	”	21
江原日報	01		' '	22
강원도민일보	19	[]		23
강원도민일보	19	[]		24
江原日報	25	[] GTX	, ' '	25
江原日報	25	[]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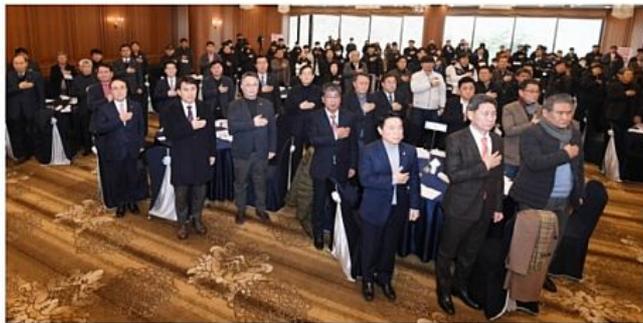
2023 02 03 ()

江原日報

[포토뉴스]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결단식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참석인사 및 선수단이 동계체육대회 선전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02 03 ()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참석인사 및 선수단이 동계체육대회 선전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등 참석인사 및 선수단이 동계체육대회 선전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2023 02 03 ()
23

江原日報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마중물 기원”

동계체전 강원선수단 결단식
총 495명 참가 종합 2위 목표
17일부터 본경기 선전 기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에 나서는 강원도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2일 춘천 오라 베어스 호텔에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동계체전 결단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단식에는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김천수 (사)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종목 및 시·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결단식은 총감독을 맡은 김용주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참가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결단식사, 격려사, 선수대표(아이스하키 이준호, 스피드스케이팅 김서희) 필승다짐, 꽃다발 증정식,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양희구 회장은 “지난해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위로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결단식이 2일 춘천 오라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 참석 인사 및 선수단이 동계체육대회 선전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번 대회가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도민과 체육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1년 앞으로 다가온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35년 동안 강원도가 3위 밖으로 벗어난 것은 단 한 번뿐”이라고 선수단을 칭찬하며 “체육 예산 지원에 힘쓰고, 올해 열리는 여러 종목의 도지사배 대회에는 최

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자신의 기량을 연마한 선수들의 노력과 맘을 믿고 응원하겠다”며 “저는 운동 실력도 학력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드릴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기찬 부의장은 “선수단,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전의 날만 남았다. 자랑스러운 도민들의 대표로서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총 495명(선수 338명, 임원 157명)이 참가하는 도선수단은 사전경기가 마무리된 현재 금·은메달 각 7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종합 2위에 올라 있다. 본 경기는 오는 17일부터 열린다. 권순찬기자

강원도민일보

“청소년동계올림픽 G-1년, 전국동계체전 종합 2위 도전”

강원도선수단 동계체전 결단식
내년 올림픽 성공개최 퍼포먼스
9년만에 2위 탈환 열전 다짐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가 '제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9년만에 종합 2위에 도전한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 결단식이 2일 춘천 오라호텔베어스 대회연회장에서 선수 및 임원 100여명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허인규 G1방송 사장,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회원종목 및 시·군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서 도선수단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필승을 다짐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도선수단 495명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총 8개 전 종목에 참가해 메달을 노린다. 이번 동계체전은 도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다.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스피드와 바이애슬론이 지난달 31일 끝난 가운데 도는 현재(2일) 서울보다 5점 높은 총득점 190점으로 2위에 올라있다. 1위는 경기(총득점 375점)다.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이 2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선수,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단식 후 참석자들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는 2014년 제95회 동계체전 이후 9년 만에 종합 2위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도는 종합 순위를 매기기 시작한 1986년 제67회 동계체전 이후 2위 18번, 3위 17번 차지했다(종목별 대회로 열린 2017년 제99회 동계체전, 코로나 19로 미개최된 2021년 제102회 제외).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게다가 도는 이번 동계체전 스키 종목에서 12연패의 대기록을 작성하겠다는 각오다. 전국적으로 스키종목 선수층이 얇아지는 추세지만 도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년도 보다 무려 19명이 증가한 136명이 참가한다.

한편 이날 결단식에서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출정사로 “2등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체전을 통해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1년 앞으로 다가온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격려사로 “경기를 다음으로 서울, 강원도 잘한다고 하는데 경기와 서울의 인구나 예산은 우리 도에 비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그런 데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에 정말 눈물겨운 투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계체전이 도에 집중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찬 부의장은 “혹한의 날씨에도 피땀 어린 훈련으로 이 자리에 온 선수단과 지도해 주신 지도자, 그리고 지원을 베푸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부상이 없길 바라며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도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회 없이 경쟁하길 바라며 자신과의 승부에서 인내와 냉철함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실력도 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부 또는 예체능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심예섭

2023 02 02 ()

KBS 춘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강원도 목표 3위”



강원도체육회는 오늘(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출전 선수와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동계체전에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동계체전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와 서울·경기도·경상북도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강원도에선 8개 종목에 선수 495명이 참여합니다.

조휴연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02

김광래 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예정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본지 1월13일자 4면)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강원도의회는 2일 강원도로부터 김광래 제11대 도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4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회기 당시 도립대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최재석(동해) 의원, 부위원장은 최승순(강릉) 의원이 맡았다. 심영근·심오섭·유순옥·김용복·전찬성·박대현·진종호·최재민·염기호·조성운 의원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2 02 ()

[동정]심오섭(강릉) 도의원

심오섭 도의원(강릉)은 3일 오전 10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 행사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2 02 ()

[동정]박호균.김용래 도의원

박호균 도의원(강릉)은 3일 오후 6시 강릉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리는 강릉제일고 총동창회장이.취임식에 참석.

김용래 도의원(강릉)은 3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개최되는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2 03 ()
27

◇박호균강원도의원(강릉)
은 3일 오후 6시
강릉 세인트컨
벤션에서 열리
는 강릉제일고
총동창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2023
18



진종호(양
양) 도의
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양양
일출웨딩홀에서 열리
는 양양문화원 정기총
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11



김희철(위
원쪽) 도
의원·유홍
규(위 오른
쪽)·신성
열 시의원은 3일 오후
6시30분 미래컨벤션웨
딩홀에서 열리는 자율
방법연합대장이·취임
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15



지광천(평
창) 도의
원은 3일
오전 10시
평창농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평
창농협 정기총회에 참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18



이지명(비
례) 도의
원은 3일
오전 10시
고성 죽왕
면복지회관에서 열리
는 정월대보름맞이뽕
튀기·기쁨 나누기 체
험행사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2 03 ()
03

“강원도 디지털·데이터 기반 산업 지역 재편”

與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도당 찾아 당원들 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사진) 국회의원이 2일 강원도당을 방문해 “강원도를 첨단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지역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춘천시는 데이터 산업 수도, 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의 메카, 강릉권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강원북부권은 스마트팜·관광, 강원남부권은 산림클러스터·수소에너지 사업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원 도당 방문에는 도당 부위원장인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정선자 부위원장, 박관희 도의원, 이영욱 도의원을 비롯한 시·군의원, 당



원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인 손용준씨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히며 “당원이 당의 주인이란 것이 외달도록 당원 중심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20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가 2일 심영곤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제천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15



정선 남면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정선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지난 1일 남면복지회관에서 최영수 소방서장을 비롯한 최승준 군수, 김기철 도의원, 전영기 군의장, 배왕섭 부의장, 최인숙 이임대장, 이청자 신임대장,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20



강릉김씨 신년하례회 2023계묘년강릉김씨 신년하례회가 지난 1일 강릉농협에서 김복기 대총회장과 김용래 도의원, 김진덕 원로부회장을 비롯해 대총회원, 명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01



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합시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명선 도행정부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도·시·군공무원들이 2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서영 ▶관련기사 2면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02

“기부자 관계·생활인구 구축 강원 정주 인구로 유인해야”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강원도민회 중앙회-강원도-강원도민일보

**도입 1개월 전국 첫 심포지엄
민·관·학 결집 제도 활성화 모색
실질적 방안 논의·열기 확산**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 첫 심포지엄이 열렸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강원연구원, 강원도민회중앙회는 2일 오후 강원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각 시·군 고향사랑기부제담당 공직자와 강원연구원, 강원도민회중앙회, 언론 등 민·관·학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캠페인 동참 열기를 확산시켰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자치재정과 지역소멸 대응,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과제' 발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은 철

저한 자체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 입장에서 지역연대·지역공유를 위한 특별한 제도"라며 "기부금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조성 등으로 강원사회기반 투자 대표 자원 활용 및 애함심의 정서적 호소보다는 생활인구 확대 등의 논리로 접근해 기부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했다.

이행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장도 "기부자들에게 명예군민증·명예 시민증을 발급, 로컬맛집할인 등을 통해 지역을 찾도록 하는 관계인구·생활

인구 관계를 구축해서 정주인구로 유인해야한다"며 "인접 지자체 및 수도권 과연대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가들께서 모아주신 지혜가 도와 18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운영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천수 도민회 중앙회장은 "핀셋 마케팅 등 과감한 홍보를 통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 도민회중앙회는

범국민캠페인을 중심으로 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경쟁'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향사랑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박지은·김덕형 ▶상보 6일자

LG

2023 02 02 ()

맑은 공기 강원, "이제는 옛말"

박건상

충남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2위 강원도

맑은 공기 강원, "이제는 옛말"

김난영 아나운서

강원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지금은 하얀 눈과 깨끗한 공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깨끗한 공기는

옛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범은 시멘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한 시멘트 공장.

플라스틱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에선 이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발생한 열로 시멘트를 만듭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김기하 / 강원도의원]

"순환자원을 계속해서 연도별로 봤더니 많이 때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이 사실 쓰레기를 가지고 때는데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자리를)요구하게 됐습니다."

무연탄 연료도 문제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연탄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자 : 지난 2021년 강원도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일명 녹스는 3만 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2위는 충북.

강원도 다음으로 시멘트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공장들은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광호 / OO 시멘트 공장 공장장]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사용량을 2030년까지 100% 줄여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들은

폐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인터뷰...조성운 / 강원도의원]

"사실 시멘트 회사는 친환경 회사가 아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전부터 환경 피해나 자연훼손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친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기 싫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충남에 이어 2위.

청정 강원도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박건상입니다.

박건상 camerabag@ghv.net

2023 02 03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속초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간담회' 열려

황미정 기자

군용전기통신설비로 인한 규제로 30년 이상 사유재산권 침해



속초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월 1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속초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월 1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강원도의원, 강원도-속초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내에 해당되는 속초시 장사동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구 시가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들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감소 및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여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과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신, 정부 규제혁신 과제 제출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속초시 및 지역 주민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군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속초시 김성림 부시장은 "민선8기 이병선 시장의 공약사업인 북부권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황미정 기자 gwnews@hanmail.net

江原日報

고성 남부권.속초 북부권 군사규제 완화 절실

수십년 간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 작용
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최대 현안 부상



속초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고성군 토성면 용촌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의 군사규제(본보 1월27일자 19면.2일자 1면 보도) 완화가 속초와 고성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속초와 고성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아 온 군사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용촌지역에 있는 통신부대로 인해 반경 1.5 이내에 위치한 속초시 장사동 10.11.12.14통 등 속초 북부권 및 고성 남부권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지상 18m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를 타고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속초 남부권과 달리 장사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은 지역 내 도로변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군사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속초시와 고성군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부대 이전 및 규제 완화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군(軍)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주민들은 "속초 남쪽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속초 북부권인 장사동은 아직도 낙후돼 있다"며 "손수레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로 인해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마을 전체가 화마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구 도심 주택 개별면적이 25~30평 밖에 안돼 집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데다가 군사규제로 인해 상실감만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고도제한 등 군사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강원도에 청원서를 보낸데 이어 군부대 측이 규제완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성군과 공동으로 상경투쟁을 하는 등 실행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영환 장사동새마을발전위원장은 "이번에는 결연한 각오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부대 이전, 전파방해 문제의 기술적 해결, 특별자치법 특례 반영 등을 통해 군사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성지역 주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江原日報

특별자치도법 '원안 지켜라' ...강원도, 한달 간 '초비상 체제' 돌입

6일 강원특별법 특례 개정안 국회 발의...원안 사수 총력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정부 반대 표명시 통과 어려워
김 지사-국방부 장관 면담, 부처별 법안 통과 협조 요청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가 다음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은 오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까지 한달여간 개정안 원안 사수를 위한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다. 특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항, 특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들고 있어 이 기간 부처 설득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테이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 끊는다.

김 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등 국방분야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5년부터 농·축·수산물 군납 조달체계를 경쟁조달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접경지역 생산 농산물 군부대 조달 시 수의계약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특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활용 군용지에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무상양여하거나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인 민간인통제선은 5로 축소하는 특례도 만들었다.

이같은 내용의 국방분야 특례는 군사보안, 작전상의 검토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던 난제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강원도는 다음 주부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을 일일이 방문, 환경·산림·국방·농지 4대 규제 특례와 전략산업 육성·지역개발, 관광, 행·재정 자율권 부여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전 실·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 다음 주부터 담당 부서별로 중앙 부처를 찾아 특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음주 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정부의 반대가 있는 조항은 개정이 보류될 우려도 있어 정부에 특례별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 02 03 ()

江原日報

강원도 2청사 설치 두고 지역.도청 내부 '뒤숭숭'

강원경제인연합회 "영동 7개 시군 참여해야" 주장
조직개편 임박, 인사기준 등 두고 도청 내부 술렁
강릉 도심과 멀리 떨어진 임시 2청사 시설도 불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월부터 강릉에 강원도 2청사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역과 강원도청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는 2일 "강원도 제2청사 공론화위원회.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영동지역 7개 시.군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주민설명회와 함께 이관 타당성 용역을 제안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가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행정 효율성 극대화, 도민 편의 고려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2청사 설치에 영동지역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현재의 환동해본부 기능과 인원 보강에 그치는 수준으로 간판만 바꾼 제2청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청 내부도 뒤숭숭하다.

3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청사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보고받기로 돼 있는 가운데, 2청사 설치 시 춘천에 거주 중인 직원들은 터전을 옮겨야 하는데다 수산, 자원, 기계, 공업 등 소수직렬이 인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또 임시 2청사로 거론되는 강원도립대, 사임당교육원 등이 강릉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안, 인사지침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직렬만 집중적으로 2청사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江原日報

2023 02 03 ()
01

난방비 34.6% 폭등 소비자물가 전국 최고

도내 교통·식료품비 인상 도미노 ... 이달 전기료도 오를 전망

강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았다. 특히 이번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2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강원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9%에 달했다. 전국 평균 5.2%보다 0.7% 포인트나 높다.

강원도 내 물가는 지난해 12월(5.7% 상승)부터 두 달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 이상의 오름세는 2022년 4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겨울 한파에 따른

난방비와 식료품 가격이 상승이 꼽힌다.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등유 가격은 도내에서 1ℓ당 1,457원으로 지난해 1월 1,067원에 비해 36.5% 급등했다.

경유는 같은 기간 1ℓ당 1,487원에서 1,695원으로 14% 올랐다.

도시가스(가정용 LNG 35㎡) 비용은 지난해 3만7,233원으로 1년 전 2만8,166원에 비해 32.2% 상승했다. 전기료는 29.5% 올라 이에 따른 지역 난방비는 34.6% 치솟았다.

공공서비스 비용으로는 도내 시내 버스 요금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21.4%) 인상된 요인이 컸다. 이에 따라 도내 교통비(4.0%)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채소 가격 상승률도 7.7%로 전국 평균 5.5%를 크게 웃돌았고 식용유, 라면, 소주 등 각종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이번 달에도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전기료는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04kWh) 전년 동월 대비 1만1,2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덕진 강원지방통계지청 팀장은 "강원지역 난방 관련 등유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도내 관광지가 많아 서비스 분야 가격 상승률도 높았다"고 말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2023 02 03 ()
05

江原日報

“가격 올리면 손님 끊기고 ... 안 올리면 문 닫을 위기”

고물가에 외식업계 침체 가속

높은 물가에 강원도 내 외식업계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재료값 상승에 따라 외식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메뉴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은 가격부담에 외식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찾은 춘천 운교동의 한 중국집. 테이블 4개와 좌식용 3개를 두고 홀을 운영 중인 사장 최모씨 부부는 직원 없이 점심 식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가게 중앙에 걸린 메뉴판은 스티커를 붙여 여러 번 수정한 흔적이 역력했다. 짜장면은 4,500원이던 것이 지난해 500원씩 두 차례 인상해 5,500원이 됐다. 짬뽕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탕수육 소짜는 1만6,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최씨는 “가격은 많아야 1,000원 올리는 것이 고작인데, 식재료값은 전부 30% 이상 올라 감당이 안 된다”며 “그마저도 가격 인상 이후 손님들이 짬뽕 대신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 먹으려다 안 먹고 하니 수익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주요 식자재 가격은 1년 새 크게 뛰었다. 지난해 이맘때 4만8,000원 하던 식용유(18ℓ)는 6만8,000원으로 41%나 비싸졌다. 양과는 15kg에 1만9,000원에서 2만9,000원이 됐고, 밀가루는 20kg에 2만4,000원 하던 것이 3만원을 넘보고 있다. 가스비 역시 지난해 12월 20만원에서 1월 25만원으로 5만원 가량이 뛰었다.

식용유·밀가루 재료값 급등
가스비도 폭탄 업주들 한숨

26개 품목 평균 인상률 10%
‘식비상승→소비감소’ 악순환

춘천 옥전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70)씨도 설 연휴 직후부터 제육쌈밥, 불고기, 김치찌개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했다. 천정부지 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다. 그러나 김씨는 “메뉴 11개 중 인상이 시급한 3개만 염선해 가격을 올린 것인데도 테이블당 주문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푸념했다.

지난 1년간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식당은 한두 곳이 아니다.

강원물가정보에 따르면 2022년 1년 동안 도내 가격조사 외식품목 26개 가격이 모두 상승, 평균 인상률은 10.38%에 달했다. 소갈비가 20.48%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고, 이어 김밥(15.9%), 라면(15.2%), 짜장면(14.6%) 순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외식비 상승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외식업계를 침체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외식 소비 수요가 다시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식재료 비용 상승에 따른 공급 위축이 동반되며 외식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물가 상승 여파로 음식점마다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춘천시 운교동의 한 중화요리전문점 메뉴판에 최근 인상된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14

영월~삼척 고속도로 태백 중심지 경유 청신호

이상호 태백시장 기자간담회 개최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 5개 시군을 관통하는 영월~삼척고속도로가 태백 중심지를 경유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태백의 중심을 크게 벗어나 하사미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검토하던 해당 노선을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고함읍과 태백시 삼수동 일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강원도 공식 제안은 변경안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도전구간을 동시에 착공해 준공일정을 앞당겨 교통오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한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장성광업소의 폐광과 함께 북

구작업이 바로 진행되도록 해 광산 근로자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석공부지를 무상인수해 티타늄 등 희귀자원 산업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백소방서 신축문제와 황지 정보산업고 학교 개편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이 시장에 시정 브리핑룸을 폐쇄하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 지역현안을 파악하느라 바빴고 선거 이후 뜬소문이 많아 언론뿐 아니라 지역원로들도 의도적으로 피해왔다"며 "앞으로는 언론 등과 더 자주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안의호

2023 02 03 ()

강원도민일보

의암호 개발 협약 또 번복 춘천시 신뢰 타격

"오늘 협약 체결" 발표 후 철회
앞서 MOA 두 차례 무산 전례
시 "추가적인 협의 필요" 해명

속보=더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사업(본지 1월 26일자 9면 등) 실시협약(MOA)이 또다시 뼈격이고 있다. 실시협약 공표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춘천시의 행정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춘천시는 2일 오후 4시쯤 보도자료를 내고 3일 오후 2시 민간 투자자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분 뒤 춘천시는 기자단에게 공식 입장을 내고 "실시협약 일정이 최종 조율중에 있어 보도를 잠시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 1시간 뒤, 춘천시는 '협상 안건 조율'문제로 3일 협약건이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과 8월 사업자 측의 지분 문제와 사업의 불확실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MOA가 두 차례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민선8기 춘천시는 책임준공확약 방식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단 판단에 정상 추진을 발표했다. 시가 이번 주 중으로 실시협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던 만큼 실시협약 하루를 앞두고 또 다시 무산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보류 책임 주체를 놓고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MOA조율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확정되는 대로 협약을 맺을 것"이라며 "너무 힘들게, 치밀하게 마지막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약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시 담당자는 "실시 협약이 임박, 1~2시간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 자료를 배포, 육 시장과 해당부서가 엇박자를 내는 모습도 연출됐다.

춘천시가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9년이 지난 데다 2021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2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자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종 조율 단계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승은

2023 02 03 ()

강원도민일보

15

정선 가리왕산 정상 '두등실' 대보름달 만나요

5일 케이블카 운행시간 연장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퍼포먼스
관람객 장갑 등 기념품 증정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정월 대보름 날인 5일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상(1381m)에서 대보름달 구경하기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올해 1월 3일 가리왕산 케이

블카를 본격 운영해 매주 토요일에는 해넘이, 일요일에는 해맞이 행사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에 대보름 달을 구경하면 좋겠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시행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20분이면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리왕산 정상에서 보는 정월 대보름 달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대보름 달 구경하기 이벤트 진행을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케이블카 하부 탑승 시간은 이날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정상에서 탑승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이날 가리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2018 동계 올림픽 기념 장갑 1개와 손난로 핫팩을 증정한다.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는 희망일출모임(산악대장강희갑)은 이날 강원

도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 강원도 18개시·군 심벌마크가 새겨진 연 100개를 가리왕산 정상에서 날리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군 관광과장은 "올해 추석에도 가리왕산 정상에서 대보름 달 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향후에 은하수 관찰하기, 명상·요가 체험,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2023 02 03 ()

강원도민일보

14

동해항 벌크하역 비산먼지 피해 대책 시급

다량배출 현장 고발조치 불구
동해해수청 관리 미흡 등 호소
시, 미세먼지 감시활동 강화

강원 동해항 벌크화물 하역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가 심각, 환경관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환경감시단이 동해항 서부두의 무연탄

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현장을 적발·확인한 후 A하역 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밀폐 하역시스템(에코호퍼)이 고장났으나 관리자인 동해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애로 사항을 호소했다.
시는 지난해 2월에도 동해항 서부두에서 B업체가 석탄하역을 하면서 역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고발조치했지만,

그 결과가 12월말에 나오는 바람에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세운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30% 감축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생성물질 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인수

2023 02 03 ()

江原日報

“벗짚 태우다 뒷동산 태운다”...농부산물 소각 화재 주의보

최근 3년간 발생한 2월 화재 총 62건
 이중 절반 가량인 29건 소각 중 발생
 “건조한 날씨 농부산물 소각 자제 필요”



사진=강원일보 DB

4일 입춘을 계기로 한파가 물러가고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농사를 앞둔 농민들이 농부산물 소각 등의 채비에 나서면서 화재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영동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농부산물 소각 중 발생한 임야 화재는 인근 밭이나 야산으로 옮겨 불을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2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62건이다. 이중 절반 가량인 29건(46.7%)이 농부산물이나 임야, 쓰레기 소각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화재였다.

지난해 2월14일 강릉시 연곡면의 한 밭에서 60대 A씨가 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날 정선군 신동읍서는 농막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 농막인근 50m²가 불에 타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됐다.

임야 화재는 대부분 산과 밀접한 들이나 밭에서 발생,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농부산물 처리 시 소각보다 지자체의 파쇄기를 이용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부산물 소각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통해 혹시 모를 화재에 필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봄철에 발생하는 임야 화재는 바람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불길 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며 “밭이나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 피해를 낼 수 있으므로 농부산물 소각 전 관할 소방서에 필히 신고를 마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江原日報

2023 02 03 ()
01

낮부터 영상권 회복 ‘포근한 입춘’

3일 강원지역은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졌다가 낮부터 영상권으로 회복, 포근한 날씨가 찾아 오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춘천 4도, 원주 3도, 강릉 6도로 분포, 동해는 최고 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로 돌아서겠다. 입춘(立春)에 들어선 4일도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 동해

안의 낮 최고기온이 최고 8도까지 오르고, 하늘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동해안과 남부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면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3일까지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돼 물결이 높아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 19

공공요금 지원 교통 분담해야

-연초강원경제지표암울,지자체 활력 앞장서길

작년부터 연간 서너 차례에 걸쳐 올린 공공요금 인상이 옮겨올을 지나면서 난방비 급등으로 치명타를 준 가운데 전기료 역시 40여 년만의 대폭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비단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점포, 나아가 올 한해 장기적인 경제상황마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연초에 발표된 여러 강원 경제 지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월 하순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 통계지청 등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는 올해 지역경제 상황의 향방이 녹록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강원 통계지청은 1월 강원 소비자물가와 피부에 민감한 생활물가지수 모두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악화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주택 가격은 내렸지만, 오히려 시민 주거 비용 부담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서비스업과 함께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경기 또한 밝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도내 아파트 입주 예정은 7732호, 분양 예정 물량은 7167호로 최근 5년간 장기평균 입주 및 분양 물량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깝게 빠지는 수치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면 주택 가격 하락은 늦출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

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문제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는 강원도에 대한 외지 자본 유입과 투자가 매우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지역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이 강원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서울 25개 구 중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강원본부는 자금 경색 및 금리 인상 요인도 있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이 강원도의 기업 유치를 비롯한 외지 투자와 유입 환경을 매우 불리하게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민 생계의 막막함을 보여주는 또다른 수치도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이 전에 비해 10배라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을 병행한 물가조정 방식이 아닌 대거 외국산 수입으로 대체한 것이 주요인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된다는 비상한 인식으로 공공요금 지원 및 경제 활력 대책을 줄줄이 내놓는 희망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03 ()
/ 19

동계청소년올림픽 봄 조성 절실

-평창올림픽 경험 살려 경제효과 극대화해야

세계 청소년들의 동계스포츠 축제인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는 만14~18세 청소년을 체육활동의 길로 이끌어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 자창설된 전 세계 청소년화합의 장이다. 2007년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배경으로 2010년 싱가포르에서 하계청소년올림픽으로 최초 개최된 이후 2년마다 하계와 동계를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비중에 비해 아직 도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언론과 스포츠 팬들의 시선이 쏠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와 홍보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대회는 동계올림픽에 못지않은 강원 홍보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원도를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 등 일원에서 70여개국 2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경기는 7개 경기 15개 종목(81개 세부 종목)이 도내 9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동계올림픽에 못지않은 국제적인 규모로 평가됩니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행사기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고, 대회유치를 통해 개최지역 내 숙박, 교통망, 레저시설 등에 대한 투자 및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와 임원, 국내외 언론, 관람객 등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경기장 활용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2월부터 보수·보강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개·보수 공사는 올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설상경기장과 빙상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 최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반면 대회 규모와 파급효과에 비해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분위기 조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큰 행사라도 주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개최지는 물론, 범도민 차원에서 폭넓게 공감대를 확산시킬 다각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의 저력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필수적입니다.

江原日報

2023 02 03 ()
/ 25

GTX 원주 연장, ‘말잔치’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에 GTX-B 춘천 연장계획이 포함돼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용역은 올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도 이때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 송도~마석을 잇는 GTX-B 춘천 연장은 지역 숙원사업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ITX-춘천의 운행횟수 감소 및 열차 지연을 막고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원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 망우에서 마석까지 경춘선을 공용해 공사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도와 춘천시는 동서고속철도와 GTX-B를 연계해 주거·상업·업무시설, R&D 연구시설 등을 결합한 복합 미래형 콤팩트시티로 만든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그러나 경기 파주~동탄을 가로지르는 GTX-A의 원주 연장의 경우 이번 용역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대신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천을 지나 여주까지 연결 가능성이 있는 GTX-D의 원주 연장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GTX-D는 노선을 비롯해 사업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

아 원주권 연장 여부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사업이다. 사실상 언제 원주까지 연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동안 GTX-A 원주 연장을 간절히 바랐던 도민의 실망감과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다. 재원 확보나 수익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진행 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GTX 노선을 새로 추진한다는 것에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른 GTX 노선들도 10년 만에 겨우 첫 삽을 떴거나 예타만 통과했을 뿐 앞으로 넘어야 하는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GTX가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진짜 현장은 지자체다. 정부는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국토계획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지역 균형발전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토대다. GTX 연장은 강원남부 내륙권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원주시는 GTX-A 노선의 원주 연장을 광주이천·여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불균형·불공정 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를 설치하고 경강선을 통해 광주이천·여주·원주를 하나로 이어야 한다. 정부는 GTX-A 원주 연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江原日報

2023 02 03 ()
/ 25

정부, 의료 사각지대 많은 강원도를 방치하고 있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구호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뇌·혈관질환과 소아과, 분만 등 강원도 내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강원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선·보완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 도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희생

이 크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인프라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분야조차도 도내 환자들이 진

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출산 시 위험도가 높은 임신부를 진료하는 시설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있는 곳은 강원대병원 1곳뿐이다. 더욱이 강원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 이후 고위험 산모들이 오히려 수도권 등 먼 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분만취약지에 해당된다. 아동 진료 인프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원도에는 소아암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강원도 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에도 이에 대한 인력 대책도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물론 낙후된 강원도 의료체계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 화재 등 다양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낙후된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 의료장비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산모들이 원정 진료에 나서고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균형발전과 복지국가 실현은 다 헛구호가 되고 만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 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빠져

고위험 산모들, 수도권 등 원정 진료 나서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 마련 시급

각지대와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다 강원도 스스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도시지역 의사들이 지방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지역의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어민과 빈곤층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제때 치료받고 이들을 끌어안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